

기독교학교의 신학적 정체성 탐색을 위한 국내외 기독교학교 유형 분류 사례 연구

노현욱(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교육학)

본 연구는 보다 큰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이자 선행연구 성격을 갖는데, 본 고로부터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는 기독교학교의 신학적 경향성을 분류하는 유형화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노현욱, 2019, 2-5).¹⁾ 계획하는 전체 연구에서 본 고는 기독교학교에 대하여 유형 분류를 시도한 선행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기독교학교의 신학적 경향성을 진단하기 위한 분류 준거와 관련된 함의를 탐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개별학교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연구가 아닌 학교의 집단적 특성을 파악하는 거시적 연구를 수행할 것인데, 특히 학교들이 집단적으로 보여주는 특성을 파악하여 분류하는 유형화 연구(typology)들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거시적 접근을 위해 먼저 학교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의 핵심 대상인 기독교학교를 기본으로 하고, 정체성 측면에서 구별되면서 비교 대상이 되는 대안학교와 국공립학교로 크게 나눌 것이다. 기독교학교는 학교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미션스쿨과 기독교대안학교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²⁾ 하지만 학교의 구분은 개념적으로만 전제하고, 실제 유형 분류 사례 연구에 대한 고찰은 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인데, 미국과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기독교학교 유형화 연구 사례를 고찰할 것이다.

1. 미국 기독교학교에 대한 유형화 연구

미국 기독교학교에 대한 유형화 연구는 카퍼(James C. Carper)와 헌트(Thomas C. Hunt)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강영택의 연구를 통해 보완하여 루터교학교,

1) 본 고는 글쓴이의 학위 논문 가운데 “V. 기독교학교의 유형화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논문에서는 기독교학교와 함께 대안학교에 대한 유형화 연구 사례도 비교하였으나 글의 양이 많아 기독교학교 부분만 다루었다. 정식 논문 형태보다는 내용을 잘 요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함의는 새롭게 정리하였다.

2) 미션스쿨은 개신교 선교역사 초기에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사학교가 그 효시이며, 지금까지도 복음전도와 선교를 학교의 중요한 설립목적으로 삼고 있는 학교이다. 지금의 미션스쿨은 근본적인 정체성에서는 선교사학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교육체계 속에 있어서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 국공립학교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공교육 틀 안에서 예배나 종교수업, 기독교 동아리 활동, 전도활동, 신앙지도 등이 이루어지는만큼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입학하여, 성경에 기초하여 비교적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기독교신앙교육을 실시하는 기독교대안학교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점에서 미션스쿨처럼 공교육 형태 속에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기독교계학교로, 기독교대안학교처럼 기독교적 대안성에 기초하여 공교육과는 다른 기독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기독교학교라고 부를 수 있다. 다만, 이처럼 구분할 경우 기독교학교라는 표현은 미션스쿨과 기독교대안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뜻과 기독교대안학교를 뜻하는 것이 혼동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미션스쿨과 기독교대안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기독교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복음주의기독교학교, 개혁주의기독교학교, 근본주의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James C. Carper, Thomas C. Hunt, 1984; 강영택, 2013).³⁾ 이들의 연구는 고유한 신앙전통을 가진 교파들이 미국의 상황에서 어떻게 종교교육을 추구했는지를 각 교파들이 설립한 학교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루터교 학교(Lutheran School)를 설립한 미국의 루터교도들은 종교교육에 대한 높은 헌신도를 보여주었는데, 양육과 하나님의 훈계를 주제로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고자 하였다. 18-19세기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신앙부흥운동의 중심 세력인 청교도들은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회심을 중요하게 여긴 반면, 루터교인들은 회심을 중생의 순간이 아닌 학습의 과정으로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곧 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고향 독일에서 빼앗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였는데, 그들만의 설교와 기독교 신앙을 교구 학교를 통해 되찾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교구 학교를 광범위하게 설립하고 힘을 다해 후원하였다. 이들은 교구학교가 루터교 교리의 순수함과 함께 회중의 삶과 미래 세대의 정통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보았다. 루터교 학교들이 제공하는 기독교적 훈련과 교육은 특히 개신교인들에게 영향력이 컸고, 루터교 교사들이 보여준 훈육과 교육적 탁월성, 그리고 헌신 또한 깊은 인상을 주었다. 루터교 학교는 에큐메니컬에는 소극적이고, 같은 루터교 종파 안에서도 최고의 보수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들이 미국 교육에 끼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복음주의 기독교학교(Christian Day School)는 196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늘어난 복음주의 교회들을 통해 설립되었다. 이 학교들은 미국의 공교육 영역 안으로 광범위하게 또한 급속히 확장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가톨릭학교 이래로 처음이었으며, 개신교 진영 속에서는 최초였다. 당시 대부분의 주류 개신교 교파들은 분리된 기독교학교 대신 공교육을 지원했는데, 기저에는 공교육에 대한 기대와 인정이 자리한다. 당시만해도 공교육은 개신교의 믿음과 가치 체계를 반영하고 있었고, 일반 초등학교는 보편적인 기독교 시민으로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성경 읽기, 기도, 교사의 모범 등으로 비록 공립학교였지만 비교파적인 복음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⁴⁾ 결과적으로 미국 공교육의 세속화 물결 앞에서 종교교육 또한 세속화되자 당시 주류 복음주의 개신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비주류에 속하는 소수 복음주의 교회들은 복음주의 기독교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는데, 1960년 중반 이후 15-20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했다. 교육적 노력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중심성을 고백하였으며, 교과는 상대적으로 무시되었고 오히려 보수적인 기독교 관점을 강조했다.⁵⁾ 그들이 지원한 학교는 가정과 교회의 성경적인 믿음과 가치들을 포함하는 것이었으

3) 카퍼와 헌트는 기독교학교를 가톨릭 학교(Catholic School), 루터교 학교(Lutheran School), 개혁주의 학교(Calvinist Day School), 제칠일 안식교 교육(Seventh-Day Advenist Education), 복음주의 기독교학교(Christian Day School), 유대교 학교(Jewish Day School) 등 모두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역사와 특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 기독교학교의 신학적 지향성을 주요 연구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카퍼와 헌트의 유형 가운데 이단에 해당하는 제칠일 안식교 교육, 그리고 타종파인 가톨릭학교와 비기독교인 유대교 학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남은 4학교 가운데 개혁주의 학교는 상대적으로 최근 연구인 강영택의 연구로 대체하였으며, 강영택의 연구 가운데 카퍼와 헌트가 다루지 않은 근본주의 학교를 추가하였다.

4) 19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공립학교의 교육은 보편적인 종교교육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일학교는 다양한 교파들의 특별한 신조들을 교육하면 되었다. 이렇듯 공교육과 주일학교가 통합적으로 어린이들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를 평행기관(parallel institutions) 교육정책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에 만족하였다.

며,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러한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그리스도-중심” 또는 “성경-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개혁주의 기독교학교(Calvinist Day School) 또는 칼빈주의 기독교학교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뿌리는 종교개혁자 칼빈이다. 하지만 미국의 개혁주의 기독교학교는 실제로는 칼빈이 아니라 화란을 중심으로 꽃피운 신칼빈주의자(Neo-Calvinist)들과 그들의 교육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있다. 화란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주한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은 1856년 최초의 개혁주의 기독교학교를 설립했는데, 아직 교단 설립 이전이긴 하지만 이미 교구학교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교리교육의 좁은 교육을 벗어나 미국 사회 속에서 역량 있는 기독교민을 육성하는 것을 학교의 새로운 목표로 삼고자 했다. 카이퍼는 영역 주권론을 펼쳤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이주자들은 국가나 교회가 기독교학교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개혁교회의 교육에 대한 신앙고백은 언약신앙에 따라 일차적으로 가정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하며, 교회공동체는 그 책임을 공유하여 교육에 동역해야 한다는 것인데, 가정과 교회는 다음세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가정과 교회 외에도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에 따라 교육적 사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독교학교가 필요함을 인정하였으며, 기독교학교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교과지식을 해석/구성하며, 실천적 삶을 훈련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추구하였다. 근본주의 기독교학교(Fundamentalism Day School)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사회에 등장하였는데, 이 시기 미국은 전통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던 기독교와 기독교적 가치가 계몽주의의 발전과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도전받기 시작했으며,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들과 함께 유입된 다양한 종교, 문화, 사상의 영향이 더해졌다. 20세기 중반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인권운동의 결과로 미국 사회는 급격한 다종교사회가 되면서 급기야 1962년과 1963년 연이어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학교에서의 성경 읽기와 기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법원에서 통과시키자 기독교의 위기감을 느끼던 보수적인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학교를 설립하는 움직임이 생겼다. 이들을 기독교학교를 통해 세속화의 물결에 대항하고자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근대주의, 진화론적 과학주의와 회의주의, 공립학교의 휴머니즘과 정치적 자유주의에 저항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기독교와 기독교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세속화의 물결을 거부하면서, 결국 기독교 문화가 녹아든 전통적인 사회와 문화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다. 근본주의의 핵심 신앙고백은 성경의 무오성과 성경의 문자적 해석, 기독교교리의 강조, 세속 사회와의 단절,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등인데 이러한 근본주의의 핵심 사항들을 근본주의 기독교학교는 그대로 수용하였다. 학교운영과 교육활동 전체를 떠받치는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었고, 전통적인 신앙활동인 예배, 성경공부가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교과목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가르치고자 하였다.

이상의 미국 기독교학교에 대한 유형화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미국 기독교학교는 고유한 신앙 전통을 가진 교파, 종파가 그 뿌리이다. 둘째, 미국

5) 가령 역사교과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으로 보았고, 과학은 주로 창조론의 관점에서 가르쳤다. 윤리교육 또한 성경에 기초하였는데, 가치를 평가하는 최종 권위로서 성경을 찾고 읽도록 가르쳤다.

기독교학교는 배경이 되는 종파나 교단의 신앙고백과 교리,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고 다음세대에 계 구현하는 통로가 되었다. 셋째, 미국 기독교학교는 공교육의 도전에 대하여 고유한 신앙 전통을 지키는 방향으로 응전하였다.

II. 독일 기독교학교 유형화 연구 고찰

독일은 기독교국가로서 공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을 정식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 사회에서 공교육 체제 속에서 기독교교육을 실시하는 드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현대로 올수록 교육과 종교를 분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국가임이 교육체제 속에 녹아들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교육체제 속에서 기독교학교에 대한 유형화 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교육, 종교수업에 대한 연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에서 이루어진 기독교학교 유형화 연구에 대한 고찰은 학교 형태적 측면이 아닌 종교교육의 특성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고원석, 2013).

독일 종교교육의 역사는 매우 길다고 할 수 있는데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정을 기준으로 이전 교육 형태와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종교교육의 체계화된 형태로 나누어진다. 바이마르 헌법은 국가와 교회의 엄격한 구별, 종교 및 신앙의 강요 금지, 모든 학교에 대한 국가의 규율과 감독 강조, 교사의 공무원 대우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다음처럼 규정하였다, “종교교육(수업)은 비종교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의 정규 교과목이다. 종교교육의 실시는 학교 입법으로 정한다. 종교교육은 국가의 감독권을 저해하는 바 없이 해당 종교단체의 기본 원리에 따라 실시한다. 종교교육의 실시와 예배는 교사의 의사에 위임하며, 종교교육 과목과 교회의 예전 및 행사 참가는 자녀의 교육 친권자(부모)의 의사를 따른다.” 바이마르 헌법 제정까지 독일의 학교는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신앙고백적 종파학교”로서 개신교 또는 가톨릭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이다. 둘째는 “연합학교”로서 서로 다른 신앙의 전통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아 교육하는 학교이다. 셋째는 “비종교(세속적)학교”로 종교나 신앙에서 독립된 일반교육 형태의 학교이다.


<표 1> 학교교육 체제의 유형

(신앙고백적) 종파학교	(종파) 연합학교	비종교학교
학교 공식적인 입장이 기독교 신앙(개신교, 가톨릭)의 기초 위에 서 있는 학교	모든 다른 교육과정은 신앙에 상관없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되, 종교 수업은 각 신앙 및 종교에 따라 분리해서 실시하는 학교	학교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특정 종교 성향의 가르침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학교

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에 당시 서독에서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학교와 관련해서는 바이마르 헌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형태이다. 즉 국가와 교회 사이에 어느 쪽에 우선권을 주기보다 상호 간 긴장과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와 교회가 함께 만들어온

종교교육의 전통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핵심은 종교중립성(국가가 학교를 감독)과 종교의 자유(신앙, 양심의 자유 보장)이며,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종교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인정하였고, 종교수업은 종교단체의 원리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규 교과목인 종교수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한 가지는 독일의 경우 헌법에서 정한 종교교육의 규정들이 있지만, 각 주 정부마다 자체 헌법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는 중앙정부의 헌법을 주 정부의 헌법과 상황에 맞게 받아들여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종교교육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주 정부 대부분에서는 개신교와 가톨릭을 분리한 종교수업을 진행하며, 종교수업의 형태는 신앙고백적으로 실시한다. 소수의 몇 주 정부에서는 독자적인 형태로 종교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현재 이루어지는 주 정부 차원의 종교교육 형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독일 학교 종교교육의 유형

학교종교교육 모형	지역(주/특별시)	특징	성격
교회주도적 종교교육	베를린	교회의 신앙 책임	
신앙고백적 종교교육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을 제외한 모든 주	헌법 제7조 제3항에 근거	
신앙고백적-협력적 종교교육(개신교-가톨릭)	바덴-뷔르템베르크 니더작센	에큐메니컬 성격	
간종교적 종교교육(개신교)	함부르크	모두를 위한 종교	
신앙중립적 성서역사교육	브레멘	역사로서 성서	
생활태도/윤리/종교	브란덴부르크	윤리적, 중립적 종교교육	신앙 중립적

이상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기독교국가로서 독일은 우리나라의 기독교학교와 같은 상황은 아니며, 대부분의 학교가 기독교학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 정부 차원의 종교교육체제와 종교수업의 특성에 따라 학교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종교수업의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는 그 기준이 신앙고백 또는 신학적 경향성인데 이는 기독교학교 유형화의 일차적인 분류 준거가 신학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III. 한국 기독교학교 유형화 연구 고찰

우리나라 기독교학교 유형화 연구에 대한 고찰은 발생 배경과 주된 설립 목적에서 차이가 분명한 미션스쿨과 기독교대안학교로 나누어 진행할 것이다.

1. 미션스쿨 유형화 연구 고찰

몇 가지 이유에서 미션스쿨에 대한 유형화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노현욱, 2019, 2-5).⁶⁾ 첫째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설립배경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독교학교의 역사는 개신교 선교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들이 그 시작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미국이나 독일 등 서구 사회의 기독교학교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점이다. 서구의 기독교학교들은 종교나 종파, 교단이라는 나름의 신앙적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설립과 운영의 목적 또한 설립 주체가 속한 신앙공동체의 신앙고백과 전통의 순수함을 지키고, 다음세대를 같은 신앙고백 속에서 양육하여 시민사회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파송된 선교사들은 종파나 교단 등의 배경이 있지만, 그들이 설립한 학교는 선교라는 공통된 목적과 배경 위에서 설립되었다. 둘째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라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적 상황 때문이다. 선교사 학교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오래지 않다 교회나 기독교인 민간인들도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는데 선교사 학교까지 포함하여 이들 모두는 민족의 독립과 부강이라는 공통의 교육목적 가지고 있었다. 셋째는, 근대화 이후 현대로 오면서 고교평준화 제도(1974), 1980년대 고교 내신제와 일련의 입시정책, 종교교과를 선택화한 7차 교육과정 등 국가 주도 교육정책의 영향으로 기독교 학교는 물론 대부분의 종교계 사립학교의 정체성이 약화되었고 공립학교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종교사학으로서 기독교학교 고유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성은 점차로 약해졌으며 예배, 성경공부, 기독교동아리처럼 표준화된 종교활동만 모든 미션스쿨의 공통분모로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고찰한 미국과 독일의 기독교학교들은 기독교국가 또는 교파 배경에서 출발하였고, 따라서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고유한 신앙적 배경을 충실히 성취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학교”로서의 특성에 기독교를 일부 덧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오직 “기독교”를 위해 “학교”가 전적으로 기여하는 형태인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교/민족의 독립과 부강”을 위해 “기독교-학교” 모두가 기여하는 형태에 가까웠고, 현대로 오면서는 “기독교”는 점차로 약해져 무기력해지고, 대신에 국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가 매우 강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수준으로나마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가 있어 그를 중심으로 고찰을 진행할 것이다.(박상진, 2006)

첫 번째 시도는 가장 상위의 유형 구분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여러 표현을 “기독교계학교”와 “기독교학교”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는 공립화된 미션스쿨과 진정한 기독교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를 따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기독교학교 진영에서는 기독교학교, 미션스쿨, 기독교계학교, 종교계사립학교 등의 명칭이 특별한 개념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 일반적으로 미션스쿨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서구의 기독교학교처럼 신앙적 배경이 분명한 학교의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맥락에서 기독교학교 진영에 대한 최소한의 유형 정리를 위해 개념 정리가 요청된다. 가령 선교사 학교로 출발한 미션스쿨의 경우 우리나라의 교육역사에서 고유하고 독특한 자리를 인정할 수 있고, 여전히 필요성과 가치도 인정된다. 하지만 국가 교육정책의 변화와 함께 거의 공립학교화 된 상황에서 건학이념을 충실하게 성취하기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학교로서 신앙고백에

6)

근거한 건학이념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진정한 기독교교육을 구현하는 학교가 요청된다. 또한, 이러한 학교를 가리키는 명칭 또한 필요하다. 기존의 명칭들을 기독교계학교와 기독교학교로 구분하는 가장 상위의 유형 분류 준거는 기독교적 관점의 설립과 운영, 기독교교육의 구현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선교 목적의 선교사학교로 출발하여 지금은 공립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미션스쿨과 학교의 설립단계부터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기초하고, 분명한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과정 또한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있고, 학교의 운영 전반이 기독교적이고, 교과지식의 이해와 해석 및 수업 또한 기독교적인 학교는 분명 다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미션스쿨은 기독교계학교로 구분되는데 특징은 “건학이념을 갖고 있고, 교회나 기독교인에 의해 세워졌으며, 교목실이 있고, 채플이나 성경시간이 있어서 학원선교에 초점을 두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계학교는 형식적 측면에서 구조와 행정이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대비하여 기독교학교는 형식적 측면을 넘어 고유한 건학이념과 기독교적 관점, 신학적 입장을 기초로 “모든 교과목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이다. 기독교계학교와 기독교학교로 분류하는 유형화 모델은 현실적 측면에서 미션스쿨을 인정하여 기독교계학교로 분류하고, 그와 대비되는 보다 기독교적이고, 기독교교육이 구현되는 학교로서의 기독교학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시도는 개념적 유형화 모델이다. “기독교학교”를 “기독교”와 “학교”의 관계구조로 이해하고, 무엇을 보다 강조하느냐에 따라 “기독교”학교, 기독교”학교”, “기독교”-“학교”, “기독교 학교” 등으로 나누어 특성을 분류하는 것이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를 학교보다 강조하는 유형으로, 기독교학교에 대한 이해가 학교보다는 교회로 보는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도 학교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수평적 구조가 아니라 이사회나 이사장, 설립 주체가 교회인 경우 교회의 담임목사와 당회, 교장이나 교목 같은 리더십들이 관여하고 통제하는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 교직원이나 학생, 부모를 평신도 성격으로 바라보고, 리더십 본인들은 당회를 비롯한 향촌직 그룹으로 이해한다. 교회의 존재 이유에 근거하여 학교의 설립목적은 선교에 두기 때문에 예배, 성경수업, 부흥회, 학생 수련회 등의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인 측면보다 학교성을 강조하는 유형으로 “기독교”학교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다. 물론 일반학교가 아닌 기독교학교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교회나 기독교재단 등을 배경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학교로서의 형식적 요소 즉 예배나 성경수업, 교목실 등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기독교적인 측면을 강화하려 하거나 기독교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입시교육에 힘쓰는데, 이런 점에서 세속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측면도 강조하면서 동시에 세속적인 입시도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으로 두 가치관이 섞여 있는 혼합모델 또는 기독교적 측면과 학교성이 각각 존재하는 분리모델로 볼 수 있다. 기독교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성경수업, 수련회, 부흥회, 기독교동아리 등과 함께 학생 선교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더 많은 학생이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시교육에도 힘쓰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시교육에 보다 힘을 쏟는 경우가 많으며, 신앙활동은

입시교육을 지원하고 힘을 보태는 역할 정도로 활용된다. 서로 다른 두 가치관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현실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학교 유형이며, 신앙적 가치관과 교육을 통한 세속적 성공 가치관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교회의 대다수 부모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구성원들, 특히 교사의 경우 교회와 학교에서 모두 성실하고 충성스럽지만, 교회와 학교가 연결되지는 못하여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충실하고, 학교에서는 교사로 충실할 뿐이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측면과 학교성이 건강하게 결합된 유형으로 통합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고유의 신앙고백 위에서 건학이념이 결정되고, 신학적 기초 위에서 학교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신앙고백이 같은 교회와 협력관계를 가지는데 이 경우 교회와 학교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반자요 상호보완자의 관계를 가진다. 교육과정, 교재, 수업 같은 교육적 측면뿐 아니라 학교의 조직과 운영 같은 구조적이고 행정적인 모든 측면에서 기독교적 관점과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까지 적용한다. 교과목의 경우 기독교세계관 같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재구성하고, 가능한 경우 교재까지도 자체 개발하거나 기존 교재를 사용해야 할 경우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하여 사용한다. 수업의 방식 또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방식을 개발하여 진행한다. 예배, 성경수업, 수련회, 부흥회, 학생 상담 같은 학생 신앙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학원선교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생의 건강한 신앙성장의 차원까지 고려하여 실시한다. 학교구성원들은 교회와 학교가 서로 분리된 충실함이 아니라 "기독교사, 기독교생, 기독교부모"로 통합된 신앙으로 살아간다.

이상의 유형화 모델들은 기독교학교가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 네 가지 모델이 함께 엮여 펼쳐놓은 기독교학교 지도 또는 정체성 지형도는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학교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좋은 도구일 뿐 아니라, 기독교학교들과 설립을 목적하는 주체들로 하여금 현재의 자리를 제대로 찾고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정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턴트 또는 멘토와 코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2. 기독교대안학교 유형화 연구 고찰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 유형화 연구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데, 박상진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의 연구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박상진, 2012). 기독교대안학교의 유형화를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주제는 기독교대안학교가 출발하는 배경, 곧 발생 근거이다. 일반대안학교가 학교부적응 학생 및 중도탈락자의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와 함께 기존 학교교육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안적 교육의 모색이라는 사회적 고민과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과 지원이 일차적인 출발의 배경이 된 것처럼, 기독교대안학교 또한 출발하게 된 고유한 배경이 존재하며 그것은 일반대안학교와는 다른 기독교대안학교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첫 번째 뿌리가 된다. 기독교대안학교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기독교교육적 접근, 대안교육적 접근"이다. 먼저 기독교교육적 접근은 "학교에서도 기독교교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계시로부터 출발하여 교육으로 나아가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접근은 교육의 현실과 여러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대안적인 교육을 찾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디의 교육을 찾아 그것을 기초로 학교를 세우려는 방향을 갖고 있다. 대안교육적

접근은 기독교대안학교 상당수의 출발점이 기성 학교와 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추구하는 대안적인 교육은 획일적인 교육, 입시위주 교육, 경쟁주의와 성공주의, 비인간적 교육이라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속적 교육문화를 거부하고 자율성과 개성, 노작과 놀이, 공동체, 소외된 이들을 품는 긍휼교육 등을 추구한다. 대안 교육적 접근이라는 특성상 일반대안학교와의 특성이 상당히 겹치기도 한다. 실제로 기독교적 대안교육이 일반대안학교의 대안적 교육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보는 입장부터 기독교성을 보다 강조하는 입장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다. 이 접근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는 대안적 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일반대안교육 진영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대안학교는 두 가지 발생 근거로부터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갖게 되는데, “기독교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기독교교육적 접근), “대안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대안교육적 접근), “학교성”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일반교육적 접근) 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기독교대안학교의 다양한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유형화 연구가 가능해진다. 일반대안학교를 참고하고, 기독교대안학교의 출현 배경을 함께 고려할 때 기독교대안학교의 유형화를 위한 분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일반대안학교의 유형 분류 기준과 기독교교육적 접근, 대안교육적 접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적인 상위 분류 준거로 기독교대안학교의 정체성, 설립형태, 교육 기회, 환경요인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정체성에는 기독교성/대안성 강조 여부, 국제화 강조 여부, 교과목의 기독교적 접근 시도 여부가 속한다. 설립형태에는 인가 여부, 설립 주체 여부가 속하며, 교육 기회에는 엘리트 위주 여부, 장애 아동 접근성 여부, 경제적 요인 등이 속한다. 끝으로 환경적 요인에는 도시/전원, 기숙형/비기숙형 등의 요인이 속한다. 이상의 분류 준거를 기초로 모두 10가지 분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데, ① 인가/비인가 ② 기독교성/대안성 ③ 국제지향/국내지향 ④ 엘리트교육/긍휼교육 ⑤ 도시형/전원형 ⑥ 기숙형/비기숙형 ⑦ 교회설립/개인(기타)설립 ⑧ 기독교적 교과/일반 교과 ⑨ 통합/비통합 ⑩ 고급형/서민형이 그것이다.

이상의 10가지 분류기준은 기독교대안학교를 유형화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하지만 10가지 짝 형태의 기준들을 곧바로 분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대안학교와 겹치는 공통기준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가지 분류 준거를 참고로 하되 기독교대안학교만의 고유한 분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기독교성을 강조하는 학교와 대안성을 강조하는 학교”로 일차적인 구분을 하고, 다시 “어떤 기독교성, 어떤 대안성이냐”에 따라 이차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기독교성에 의한 분류는 기독교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입장부터 전혀 강조하지 않는 입장까지 스펙트럼이 존재하며, 대안성에 의한 분류는 대안성을 매우 강조하는 입장부터 상대적으로 대안성이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준들을 근거로 박상진은 모두 6가지로 기독교대안학교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기독교미인가학교로서 기독교성을 매우 강조한 나머지 미인가를 선택한 학교들이다. 주로 기독교세계관을 토대로 종교활동은 물론 교육내용과 수업에서도 기독교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대안성의 개념보다 기독교교육의 원형을 직접 추구하는 신본주의적 입장의 학교이다. 둘째는 기독교수월성학교로서 기독교성과 함께 수월성을 매우 강조하는 학교이다. 설립목적은 기독교 인재양성이며, 수월성을 강조한 나머지 입시, 성적 중심 교육을 추구하기도 한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며, 국내외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을 진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활동이 있지만, 목적은 수월성을 성취하도록 지원하는 도구적 기능일 경우가 많다. 셋째는 기독교국제학교로서 수월성 학교의 특수한 형태이다. 학생들을 해외의 유명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국제학교와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기독교성의 강조는 크지 않다. 넷째는 기독교공휴학교로서 수월성 대신에 소외된 학생들을 품는 기독교적 공휴를 강조하는 학교이다. 공휴학교가 관심을 갖는 대상은 학교부적응자, 중도탈락자, 다문화 가정 자녀들, 탈북 청소년 등의 소외계층이다.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대안학교와 출발점이 같으며 성격도 매우 비슷하다. 기독교성과 함께 대안성 또한 매우 강조하는 학교이다. 다섯째는 대안기독교학교로서 대안성을 기독교성보다 강조하는 학교이다. 따라서 대안적 교육의 핵심가치인 인성 강조, 재능계발, 생태와 환경 교육, 노작교육, 공동체 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대안적 가치들이 바로 기독교적 가치로서 기독교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여섯째는 참대안학교로서, 기독교성을 완전한 일반언어로 번역하여 기독교적 가치가 학교 전반에 스며들도록 한 학교이다. 그러기에 기독교인은 물론 일반인이 보기에 건강하고 좋은 학교로 인식된다. 일반대안학교와 연대, 소통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상의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한 유형화 연구는 기독교성, 대안성, 학교성을 고르게 반영하여 유형화의 큰 틀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이루어진 반면 기독교성에 대한 논의, 특히 무엇이 기독교성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성이나 공휴성, 수월성 등 현시대를 반영한 이슈를 분류 준거로 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유형화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있다. 또한 해외 사례처럼 기독교학교의 실상에 대한 치밀한 추적과 깊이 있는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약한 측면이다.

IV. 연구의 정리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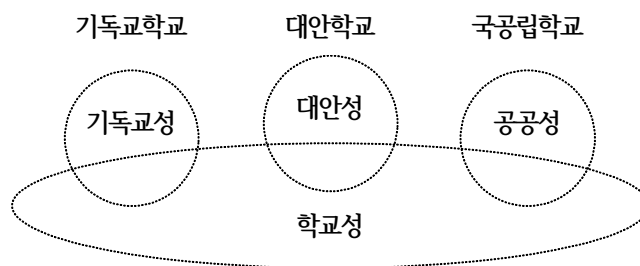
이제까지 살펴 본 기독교학교에 대한 유형화 연구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기독교학교의 시작은 해외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이주민들이 세운 종파학교였으며, 각 종파의 신앙전통에 따라 유형화가 이루어졌다. 독일의 경우는 기독교국가로서 절대다수의 학교가 기독교학교이므로 기독교학교의 유형화보다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수업의 방식을 분류 준거로 한 유형화 연구가 이루어졌다. 미국과 독일의 유형화 연구는 모두 기독교학교의 학교적 특성보다는 기독교성, 즉 종교수업의 방식이나 학교의 배경이 되는 신앙전통을 분류 준거로 하여 유형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독교학교의 경우에는 유형화 연구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뿐 아니라, 진행된 연구도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보다는 다소 표면적이고, 깊이가 아쉬운 이론적인 수준에서 유형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독교학교이 신학적 경향성을 유형화 하는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적인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과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학교의 본질과 정체성을 결정짓는 “기독교성”에 대한 분명하고 고유한 준거가 필요하다. 미국의 기독교학교는 각 교파의 신앙 전통을 준거로 하여 유형 분류가 이루어졌으며, 독일의 기독교학교는 각 자치정부가 추구하는 신학적 지향성에

따른 수업 방식을 준거로 하여 유형 분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한 신앙 전통 또는 신학이 형성되기에는 개신교의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속한 역사적 상황 또한 뒷받침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미션스쿨과 기독교대안학교는 기독교학교로서 분명한 교육적 위치를 가지고 존재하며 운영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맥락을 고려한 고유한 준거를 찾아 기독교학교의 본질적 정체성을 유형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의 신앙전통, 독일의 수업방식이라는 준거를 보다 상위에 있는 하나의 준거로 표현하면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해외 사례의 경우 기독교학교의 정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준거로 신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성과 학교성 모두가 중요하지만, 기독교학교의 본질과 정체를 결정짓는 것은 기독교성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데, 해외 사례의 경우는 한마디로 신학을 기독교성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독교학교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신학에 기초한 유형 분류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독교학교를 기독교성과 학교성으로 나누어 이해한다고 할 때, 기독교성은 기독교학교의 본질과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내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 학교성은 학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환경과 체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외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학교를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한다면 기독교학교는 물론 대안학교와 공공교육에 기반한 국공립학교 또한 같은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유형화를 고려한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모든 학교는 학교로서의 본질과 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내적 측면과 물리적 환경과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구조화할 수 있고, 두 측면 모두에 대해 분류 준거를 찾아 유형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다.



위 그림처럼 모든 학교에 대하여 정체성을 결정짓는 내적 측면과 공통요소로서 외적 측면에 해당하는 학교성으로 구조화한다면, 이를 토대로 내적 측면을 준거로 하는 유형화 연구와 외적 측면을 준거로 하는 유형화 연구가 각각 가능하고, 기독교학교의 신학적 지향성은 내적 측면에 대한 유형화 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위에서 제시한 학교의 유형화 구조와 관련하여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측면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성과 학교성이 만나는 자리이다. 만일 기독교학교를 기독교성과 학교성만으로 구조화하여 이해한다면 기독교성과 학교성이 분리된 기독교-학교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성과 학교성이 온전히 하나를 이룬 진정한 기독교학교에 대한 분명하고 고유한 학문적이고 실제적인 자리가 요청되는 것이다. 가령, 기독교학교는 신학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반대로 학교만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신학과 학교, 기독교성과 학교성이 만나는 그곳에 진정한 고유한 기독교학교로서의 본질과 정체성이 탄생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신학과 교육이 학교에서 만나 기독교학교라는 독특하고 고유한 기독교교육의 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학과 교육이 만나는 자리에서 기독교학교가, 대안과 교육이 만나는 자리에서 대안학교가, 국가의 인간상과 교육이 만나는 자리에서 국공립학교가 각각의 고유한 학교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문을 추구하는 분야가 바로 교육신학이다.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신학은 단순히 신학과 교육학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고유한 장에서 이루어지는 신학과 교육학의 대화이다. 이때 신학과 교육학의 대화는 장의 성질에 따라 독특하고 고유하게 전개된다. 즉, 기독교학교를 기독교성을 준거로 하여 유형화 연구를 수행한다고 할 때 그에 대한 학문적 근거와 토대를 교육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교육신학을 근거로 하여 기독교학교의 본질과 정체성을 유형화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방향과 내용의 왜곡 없이 바른 거시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원석. (2013). 독일 학교 종교교육의 변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편저, 종교교육론 중. 서울: 학지사.
- 박상진. (2006). 『기독교 학교 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박상진 외 3인. (2012).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성과를 말한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은준관. (2013). 교육 신학. 서울: 도서출판 동연.
- 강영택. (2013). 기독교학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33, 31-65.
- 이병환. (2008). 미국 대안교육의 다양화 경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 교육행정학연구, 26(1), 163-88.
- 이병환. (2008). 서구 대안학교의 동향과 특성 비교. 교육실천연구, 7(1), 121-40.
- 노현욱. (2019). 교육신학에 근거한 기독교학교 유형화 연구 (박사 학위).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
- Tillich, Paul. (1964). *Theology of Culture*, 남정우 역. (2002). 문화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Carper, James C., & Hunt Thomas C. (1984). *Religious Schooling In America*. Birmingham, Alabama: Religious Education Press.
- Ferré, F. S. (1967). *A Theology for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Glatthorn, Allan A. (1975). *Alternatives in Education: Schools and Programs*. New York: Dodd, Mead & Company Inc.
- Weinberg, C. (1973). *Alternatives in education: The meaning of alternatives*. Chicago: Jossey-Bass Inc.